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발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자신이 변하면 모든대상 다르게 보여

### 15면에서 계속

이런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만 아니죠.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이라고도 생각하지도 마시고 잘 파악해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혼란대장으로서의 권위가 당당하게 왕의 신임을 받고 무관으로서 조금도 자제를 잃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나빠서 권력은 있으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삼죽을 열하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탕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 못했었고 형제간에도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가려고 길을 지나다가 어느 스님 한 분이 절 지을 돈을 짊어지고는 공공하고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덤벼서 스님을 죽이고 그 돈을 훔쳐려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스님을 살리고 돈을 되찾아 스님에게 주면서 후미진데 이렇게 혼자 다니시지 말고라고 그러고는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올라가서 절을 잘 지었죠. 자기 생전에 그거 한 가지밖에 잘한 게 없어요. 자기가 나중에 늙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다가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나마 나뉘었다면 좋았는데 예전에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재자들이 됐던 말입니다. 지금 하는 요 소릴 잘 들어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가 무기력하니까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재지옥도 되지 않았을텐데, 이런 양상을 보면 그냥 잔혹함을 가니까 산재지옥에 될 수가 없거든요. 한쪽은 그렇게 됐고 한쪽은 독사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 백년을 지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또 그냥 그 소굴에 들어가면 업식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축적이나 시각적으로나 하지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손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 뱀이 들어 사람을 하는지 사람이 사람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흉악하고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는 거죠. 그리고선 그 속에서 또 날게 되고, 또 뱀이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혀 먹고 쫓기고 그냥 밟혀 죽고, 찢겨 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지면 예미나 예미가 그냥 독을 품고선 쫓아다니고 하다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를 말리면서 살기를 오 백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는 새끼들을 오물조물 낳아 놓고는 다 북북하게 잘 울기를 먹는데, 웬걸 산재자들이 땅을 파헤치면서 약초 뿌리를 파먹는다고 그냥 막 파헤치는 동안에 그게 모두 벗겨졌단 말야. 그게 원수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를 갈고 짓밟고 죽이고 잘 만났다 하면서 전부 죽이는 거죠. 전부 죽이고 나니깐은 이 독사 즉 남편이 자식, 부인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떠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가다가 이번에는 살모사 글로 들어갔어요. 또, 그게 우연히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한 것대로의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해서 업으로 인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데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죠. 그래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서 참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가를 들었어요.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아놓고 귀엽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끼들도 잘 부리고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부인이 새끼들을 낳아서 오물조물 그러는데 부인을 새끼들이 다 먹거든요... 먹고 자라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말예요. 자기 부인이 목 졸기의 독을 꼭 없애는데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것을 꼭 빼버리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그냥 새끼들이 너도나도 뜯어먹는데, 그렇게 뜯어먹는 광경. 백다귀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었는데 백다귀는 백다귀대로 개미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가져가는 광경. 그러다 보고 나 뒤에서 남편은 너무 허무한 거죠.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슬슬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밭에서 감을 내려다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께서 들으셨거죠. 벌써 오 백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오 백년이 지내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니 그 소굴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죠. 이거 그냥 얘기하면 알아들어서는 안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뱀이 아베요. 어떤 것이 쥐새끼로 들어갔다면 쥐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쥐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스님이 돌반을 하셔서 참, 도를 통하시고서 도술천의 연화장불이 돼가지고 터억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말야. 왜냐하면 그때

- 욕망 · 집착 아닌
- 도반으로서
- 동반자로서
- 나처럼 생각하고
- 자신을 사랑하듯
- 그런 사랑을 하세요

살려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지. 참회를 하고 생에 대해서 이제서야 허무함을 느끼나...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언제 들린 거지.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들린 들렸을텐데 그 전에는 아주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의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공부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이름도 쓸데없는 소리라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 애처로운 일들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시다. 애처로운 것은 여러분이 산 사람, 산 물질만 봐서 그렇지 물질을 보는 데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어서 그 애처로운 영령들은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당기는 그 마음, 세상에선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주위에선 그녀가 장녀로서 더 그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그녀는 3녀의 장녀이고 저는 1남1녀의 외아들입니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기간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공부하였고 그러던 중에 그녀를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애욕이며, 그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떨치고 애를 썼고, 있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출가하지 않고 사는 이상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싹틔우고 결혼도 하여야 할텐데 일종의 집착이나 애욕이 없으면 어찌 그런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제 자신의 지금 감정이 현재 사람인지 집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녀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두 마음이 동시에 저에게 존재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요. 두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세상 남녀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욕망이나 집착을 가진 그런 내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도리를 알고 있다면 더욱도 도반으로서 동반자로서 나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을 하세요. 값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대장부다운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맡기고 다가가기 바래요.

마음이 생기니 당당하고 겸손해집니다

### 관했더니 뇌증양수술 잘돼

언제나 저희와 한마음 한자리하시는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력을 말씀은 저번에 뇌증양 수술을 받은 친구 처남이기를 올리며 올리며 크게 관을 하는지 질문을 올렸는데... 수술을 받은 그분이 3주만에 거의 완치되어 오를 회복을 하였습시다. 신기한 것은 그 환자분이 수술 받기 전날 제가 큰스님 법어를 들려주니 무척 감명 깊어 했으며 그 환자분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제 친구도 수술도중과 수술 후 계속 큰스님 법어를 읽으며 간절히 관을 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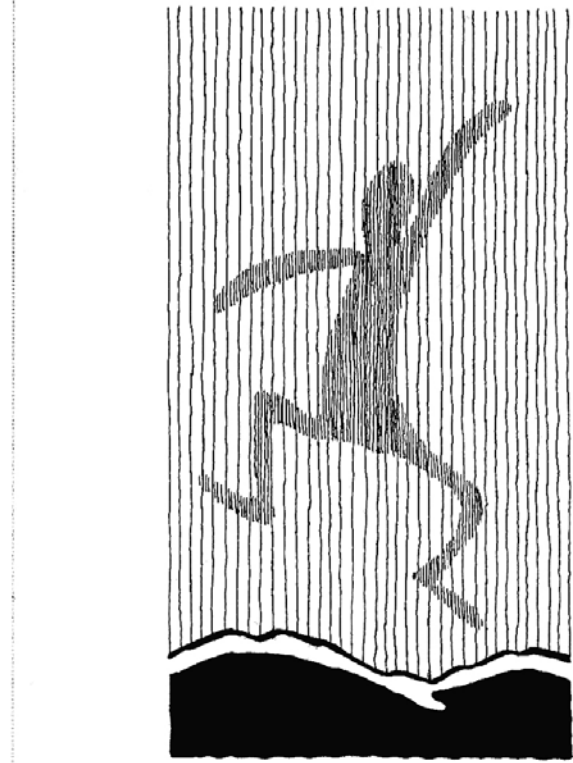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고 있지만 그 의지는 나약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기도하며 발원해보지만 그 실천의 힘은 너무 미약합니다. 저는 참된 사람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풍기며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끝내서 박힌 죄의식, 평생가도 복 받지 못할 거라는 이 자책의 뿌리를 끊기에는 지금 저의 힘은 너무나 보잘 것 없습니다. 도와주시시오. 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는 없을가요? 감히 기다리겠습니다.

것을 비로 비유하셨어요. 비가 내리서 수증기가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서 그 깊은 물 속에 모든 불이 한데 합쳐서 수증기로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산천초목도 풀 한 포기 배놓지 않고 다 두루 그 물을 주실 때, 그 물이 저 독사한테 들어가면 독사가 돼버리고 선지식한테 들어가면 선지식이 돼버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렇게 똑같지만도 그 물방울을 집어먹는 부분에 의해서 독사의 피가 되고, 선지식의 피가 되고 소의 피가 되고 저

## 과거 미래에 매이지 말고 자기변화 시키길 상대방 편하고 행복하게 해야 진정한 사랑

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줄이 짚고 걸어서 그 애처로움을 볼텐데,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볼텐데 애처롭게 파를 흘리는 그런 일들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면 삶이 고(苦)지만 마음 공부를 하여 벗어나면 오히려 삶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자신을 느꼈을 때의 기쁨을 맞본 사람들은 삶은 고가 아님을 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하여 모든 상대도 달리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일상이 공부재료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 좋아하는 여성문제로 고민

이러한 질문을 여기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7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한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일종의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녀도 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방보다 너무나 빨리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녀는 저를 부담스러워 하여 현재 서로 단방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한테 자기를 잊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다... 저는 그분들께 편안히 그리고 간절히 해아하며 매달리는 마음을 놓으라고 배운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신기했고 배운게 많았습니다. 어찌 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모두를 당당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습니.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내면 세계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것을 너무 감사드리며 어찌 뿌리를 밟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 우리는 모두 따로 따로 아님니다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나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뿌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은 앙식으로 하여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 뿌리깊은 죄 의식에 시달려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전부터 '주소'를 메모해 놓고 '편지를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다가 오늘에야 이 글을 씁니다. 글이 용기를 낼 필요는 못느꼈지만 실수하지 않고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심정에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서른여덟의 나이로 영어의 돌이 된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생의 죄인'이라는 뿌리깊은 죄의식과 고질병적인 자책, 그 생각의 습관과 자책의 쾌락에서 벗어나고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고자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과거에 악이든 선이든 또는 크든 작든, 잘못했던 잘못했던 살인을 했든 또는 참으로 신기했고 배운게 많았습니다. 어찌 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모두를 당당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습니.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내면 세계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것을 너무 감사드리며 어찌 뿌리를 밟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포기의 피가 되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두루 환한단 말입니다. 그 환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니와 그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부처님께선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중생들을 건질 때 물방울처럼 빗방울처럼 누구누구를 막아내 놓고 어디든지 적서 주듯이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게 두루 해서 적서주단 이겁니다. 그러니 강도가 되면 그 칼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강도로 써지죠. 근데 그 칼이 말입니다. 사람을 먹기 위해서 좋게 다뤄지는 칼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묶여져서 움직를 못하는 사람의 끈을 잘라주는 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이고 악이고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 달린 거지... 그리고 선이고 악이고 우리들이 행하는데 달려 있지 만 데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독사가 있다 하더라도 돌이 아닌 줄 알고 그 마음을 녹인다면 독은 없어집니다. 깊은 이 뜻을 얼마나 해야만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성이 수 억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예요. 그리고 진

###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